

종합의견

스토리 응모작들은 개성과 참신함을 갖춘 작품들이 다수 있었으며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만, 제안사가 영세하여 해외 진출 사업 주체로서 불안해보이는 제안들이 있는데, 작가가 직접 해외 사업을 관리하기 보다는 에이전시 등 전문회사와의 협력도 함께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만화(웹툰) 응모작들은 이미 웹 연재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작품들이 다수였습니다. 중국 현지 연재를 통한 흥행 성과까지 확인한 상황이라면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의 상대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.

또한 제안 작품들이 전생, 빙의, 로판 등 레드오션 장르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, 지원 사업의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면, 새로운 장르에서 도전하는 작품들도 활발히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.